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6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사순절기**: 다음 주 재의 수요일(2/14)을 시작으로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5. 성경통독: 제8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70일) 진행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2/14수) 8시 Zoom 기도회(예배소서)
7. 감사: 오늘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8. 선교지 방문: 2월 25-29일 아이티 등대교회. *강단미화: 조민연 권사 생일 감사.
9. **차세대 사역**: 새해에도 차세대 사역을 위해 관심과 중보기도를 바랍니다.
 -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2,093.00)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유혜영, 임현선, 조병기, 조민연 우영자,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해련.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김반석, 이경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서원헌금):

2024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6권 6호 2024년 2월 11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 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유금자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 양 Anthem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출애굽기 14:13-20 다 같이
- 설 교 Sermon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조병우 목사
- 봉헌송 Hymn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다 같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유금자 권사	조병우 목사	다 같이	조민연 권사
다음주	조민연 권사	박종님 전도사	조은미 사모	박종님 전도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하였건,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알면 과거에 붙들려 스스로 책망하지도 않고 죄책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날마다 변화될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19절),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리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잊지 않으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이상 정죄 받지 않는다는 (롬 8:1) 사실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31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출발을 즐기시다.

No matter who we used to be or what we've done, we can put it all behind us. We can stop beating ourselves up over our past and let go of the guilt, knowing we're completely forgiven because of Jesus' death on the cross. And we can start afresh, knowing we can rely on the Holy Spirit to daily transform us to be more like Jesus. That's why Paul reminds believers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2Cor. 5:17).

We too can say this because of the simple but powerful truth: God has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no longer counts our sins against us (v. 19). Others around us may not be willing to forget our past wrongdoing, but we can take heart that in God's eyes we're no longer condemned (Rom. 8:1). As Paul points out,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v. 31). Let's enjoy the fresh start God has given us through Jesus.